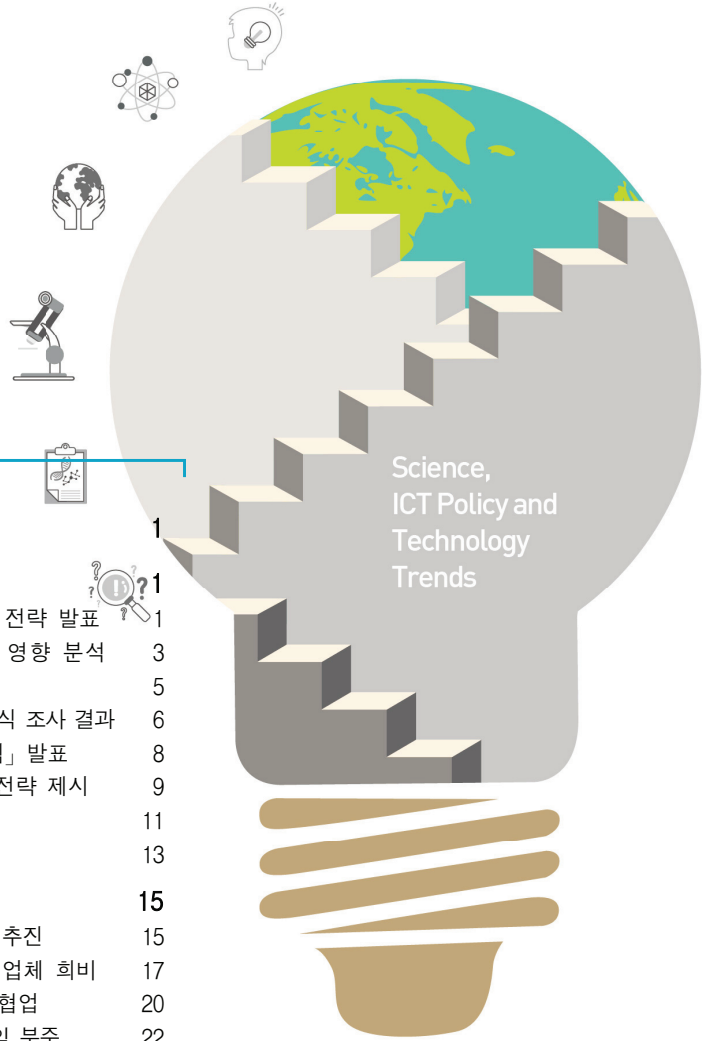


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

No. **73**
2016.7.1.

Science, ICT Policy and Technology Trends



CONTENTS

PART 01 주요 동향

1. 과학 기술

- ① 미국, 국가 안보를 위한 21세기 과학기술혁신 전략 발표 1
- ② 미국, 생명과학 혁신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 ③ 미국, 클라우드 펀딩 최종 원칙 확정 5
- ④ 일본, 박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 커리어패스 인식 조사 결과 6
- ⑤ 일본, 「2016 경제재정 운영 및 개혁 기본 방침」 발표 8
- ⑥ 중국, 시진핑 주석 등 중국 지도부 과학기술 전략 제시 9
- ⑦ 영국, 주요국 혁신기관 활동 사례 조사 11
- ⑧ EU, 개방형 혁신 관련 유럽 비전 제시 13

2. ICT

- ① EU, 미국 콘텐츠 규제 강화... '콘텐츠 쿼터제' 추진 15
- ② 美 항소법원, 망 중립성 합법... 콘텐츠·통신사 업체 희비 17
- ③ EU, '헤이트스피치' 차단 위해 미국 IT기업과 협업 20
- ④ 일본, 첨단 IT 인재 확보를 위한 정부·기업 움직임 분주 22

PART 02 단신 동향

- 1. 해외 24
- 2. 국내 31

PART 03 주요 통계

38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I 주요 동향(1) : 과학기술

1. 미국, 국가 안보를 위한 21세기 과학기술혁신 전략 발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산하 국가안보위원회는 국가안보 과학기술혁신(STI)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1세기 과학기술혁신전략*** 발표(16.5.)

* A 21st Century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rategy for America's National Security

※ 국가안보 과학기술혁신기업(National Security ST&I Enterprise)은 그간 스텔스 기술, 통합 지위 통제, 정밀 타격 체계 등 수많은 혁신 기술을 제공해 왔으나, 냉전시대 개발된 기술로는 현재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활동이나 지능형 범죄 대응에 부적합

○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으로 인한 새로운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기회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 개발 요구

- 사이버 보안, 전염병, 인공 지능 및 자동화, 기후변화 등 새로운 국토 안보 이슈에 대한 과학기술 혁신 기업의 현대화 전략 필요

○ 국가안보 과학기술혁신 기업에 큰 영향을 주는 국방, 국토 안보, 정보 제조업, 등 6대 분야의 기술 산업동향 소개

- 신경과학 분야 연구, 사이버 보안기술 투자, 안보활동 정보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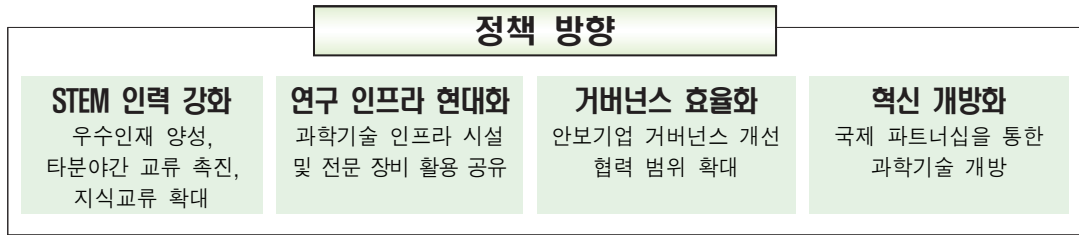
- 3D 프린팅·나노기술·바이오 소재 등 첨단제조기술 부문 발전, 빅데이터 분석, 에너지 공유 기술 투자

○ 새로운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으로 10대 이슈 분석

- (위협요인) 아시아 중심의 과학기술 국제화, 디지털 기술의 악용, 자원부족과 기후변화, 전염병으로 인한 재해, 민간기업의 기술 수준 향상, 가격 경쟁력으로 인한 기업의 해외 진출, 국가안보 과학기술 혁신기반 시설의 노후, 우수인력 활용의 한계

- (기회요인) 은퇴인력의 대체 및 해외인력 유입,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과학 기술 혁신 외교 기회 확대, 국제적 문제해결 안정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 국가 안보 과학기술혁신기업의 미래 비전 4대 정책 방향 제시



- **(STEM 인력 강화)** 세계 최고 인재 확보를 위한 STEM 교육 강화 및 인력 유치
 - STEM 부문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우수인재 양성
 - STEM 부문 인력 유치를 위한 연방기관 인력 프로그램 운영
 - STEM 분야 고급 인재 영입을 위한 공공·민간·학계 등 타 분야간 교류 촉진
- **(연구 인프라 현대화)** 과학기술 장비에 대한 현대화 추진
 - 기존 과학기술 인프라 시설의 보강 및 신규 설비투자 계획 수립
 - 최상의 기술 업무환경 조성 및 우수인재 창의성 제고
 - 전문 장비 활용 공유
- **(거버넌스 효율화)** 기업 관련 규제의 최소화 및 협력 범위 확대
 - 국가 안보 과학기술 혁신기업은 의회와 행정기관들과 협력하여 기업의 거버넌스와 사업관행을 개선
 - 국가 안보 과학기술혁신기업 개념을 학계·비영리단체·민간기업·연방 연구소 전체를 포괄하는 수준으로 확대
- **(혁신 개방화)**
 - 국제 파트너십을 통한 과학기술혁신 활동 개방성 확대
 - 정부 구매와 지적재산권 관련 자금 지원 방안 제시
 - 시장으로의 기술 사업화 확산

출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6.5.31)

https://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microsites/ostp/NSTC/national_security_s_and_t_strategy.pdf



2. 미국, 생명과학 혁신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바이오기술혁신협회(BIO)는 미국 생명과학혁신생태계 및 생명과학 혁신이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발표 ('16.6.)

* The Value of Bioscience Innovation in Growing Jobs and Improving Quality of Life 2016

※ 바이오기술혁신협회(BIO), 기술혁신 및 자문회사 TEconomy Partners, PMP Affairs Consulting 3개 기관이 미국 생명과학분야 혁신생태계 현황과 성과를 분석

○ '14년 기준 총 약 166만 명이 77,000개 이상의 기업에 고용되어 있으며, 2000년대 후반 경제위기에도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음

- 생명과학산업은 '01년 이후 147,000개의 일자리를 추가하는 등 10%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산업 대비 비교적 높은 수준임

< 생명과학분야 고용 현황 및 고용 성장률 (%) >

생명과학 및 세부분야	기업 수			고용자 수		
	2014년	2001-2014년	2012-2014년	2014년	2001-2014년	2012-2014년
농작물 생산·화학제품	1,811	5.2%	2.2%	77,545	0.0%	1.5%
생명과학 공급업무	37,833	3.4%	2.8%	452,325	8.8%	2.3%
제약·의약품	3,301	26.4%	8.0%	293,353	-4.2%	3.2%
의료 기기 및 장비	7,636	22.6%	5.5%	349,045	1.3%	-0.1%
연구, 시험·의료 실험	26,702	79.0%	10.2%	483,412	32.4%	3.4%
전체 산업	77,283	24.5%	5.7%	1,655,680	9.7%	2.2%

○ 일자리 평균 임금은 '14년 94,543달러로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우수하며, 임금 상승폭도 타 분야에 비해 높음

※ 제조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 타 분야 평균 임금은 51,148 달러임

< 미국 산업별 평균 임금 (2014년 기준,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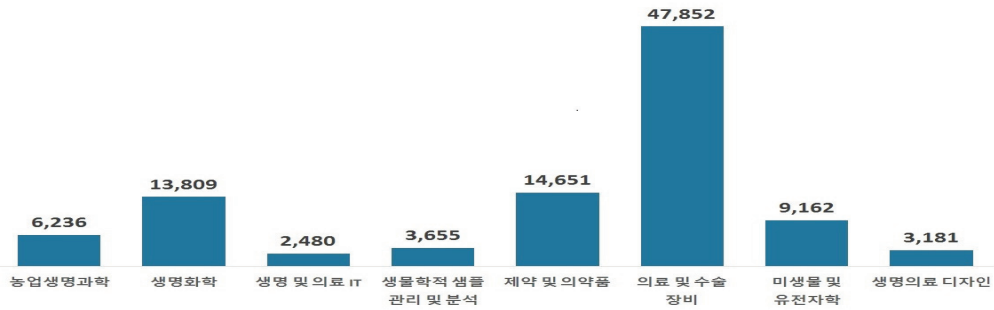
생명과학 분야	평균 연봉	타 분야	평균 연봉
제약·의약품	117,524	금융·보험	97,373
연구·시험 및 의료 실험	97,485	정보기술	90,804
생명과학 관련 공급업무	90,458	제조업	62,977
농작물 생산 및 화학제품	80,640	건설업	55,040
의료 기기 및 장비	79,537	운송 및 창고업	57,000
생명과학분야 전체	94,543	타 분야 전체	51,148

- 평균 임금 증가율은 약 6%이며, 세부분야별로는 제약 및 의약품 부문 25%, 연구·시험 및 의료 실험 부문 20%로 높은 성장률을 보임

☐ 생명과학산업 혁신 생태계는 관련 특허수가 증가하고, 혁신 R&D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임

- '12년~'15년 사이 10만개 이상의 특허 출원 중 제약·의약품 부문, 생명 의료 디자인 부문 등을 중심으로 관련 특허수가 빠르게 증가

< '12-15년 세부 분야별 특허 수 >



- 벤처캐피탈 투자금액은 '12~'13년 연평균 100억 달러에서 '14~'15년 144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단계별로 보면 초기·후기 단계에 집중

< 생명과학분야 단계별 벤처 캐피탈 투자액('12년-'15년) >

단계	투자 건수	회사 수	전체 투자액 (백만 달러)	투자 당 평균 투자액 (백만달러)	기업 당 평균 투자액 (백만달러)
창업 단계	388	308	\$1,919	\$4.95	\$6.23
초기 단계	1,974	1,114	\$17,799	\$9.02	\$15.98
확장 단계	803	477	\$7,270	\$9.05	\$15.24
후기 단계	2,427	1,167	\$15,485	\$6.38	\$13.27
인수 및 합병	157	121	\$2,223	\$14.16	\$18.37
기타	202	153	\$4,046	\$20.03	\$26.44
전체	5,951	3,340	\$48,742	\$8.19	\$14.59

☐ 향후 생명과학산업의 발전에 있어 잠재적 문제점으로 연방정부의 생명 과학산업의 투자 감소를 지적

- 연방정부, 특히 국립보건원(NIH)의 연구개발비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12~'15년 사이 연구개발비가 3%정도 감소
-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비 관련 '12~'14년 사이 전체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2%로, 지난 10년간 전체 R&D 연구개발 증가율 7%에 크게 못 미침

출처 : 바이오테크놀로지 협회 (2016.6.7)

<https://www.bio.org/press-release/national-bioscience-report-shows-industry-creating-jobs-and-driving-innovation>

3. 미국, 크라우드 펀딩 최종 원칙 확정

- ☐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6.5.16일 크라우드 펀딩 관련 최종 원칙을 발표 ('16.6.)
 - '12년 4월 오바마 대통령은 창업가들과 소상공인들의 자본 접근 제한을 완화하고자 창업증진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JOBS)을 서명
 - ※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도입을 통해 창업기업의 투자자금 유치와 상장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를 위한 목적
 - 크라우드펀딩은 제한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창업가들이 일반투자자들로부터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달러까지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조달 가능**
 -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 해당 증권의 1년간 전매 제한 등 규제 도입
 - 모든 거래는 증권 거래인이나 펀딩 포털이 개설한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거래로만 투자하며, 기업 직접 투자 불가
 - * 크라우드 펀딩 중개 증권 거래인이나 펀딩 포털은 SEC에 등록되어 있어, FINRA 회원이어야 함
 - 관련 회사는 회계 및 정보 공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자는 12개월 내 투자 가능
 - 투자자는 마감 48시간 전까지 투자 결정 취소 가능
 - 크라우드 펀딩 기업 투자 후 첫 1년은 해당 증권 판매가 불가능
 -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 해당 증권의 1년간 전매 제한 등 규제 도입
- ☐ JOBS 법 서명 이후, 창업가들의 자본 접근 확대를 창업 생태계 활성화
 - 중소기업 기업공개 규제요건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IPO on-ramp' 시행 이후, '14년 중소기업 IPO가 최고 수준 기록
 - 작년 3월 SEC가 개정한 Regulation A+에서는 증권 발행 규모에 따라 5천만 달러 이하인 경우 재무제표 공개 및 공인투자자를 통한 판매 가능

출처: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2016.6.8)

<https://www.whitehouse.gov/blog/2016/06/08/promise-crowdfunding-and-american-innovation>

4. 일본, 박사과정 재학생 · 수료생 커리어패스 인식 조사 결과

☐ NISTEP은 박사인재데이터 베이스(JGRAD)를 활용하여 박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 커리어패스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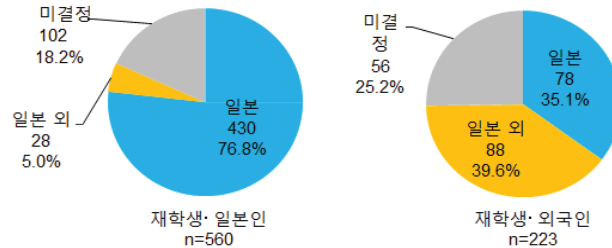
* 박사과정생의 수료후, 커리어패스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기반 플랫폼으로, '14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16.3 현재 26개 대학이 참여중

- 조사기간: '15.11.30~'16.1.29
- 조사목적: 1) 대학원 교육 및 인재육성 관련 정책수립에 기여 2) 커리어패스 구축에 참고
- 조사대상: JGRAD 등록대상자인 전분야(자연,인문계 포함) 박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자·중퇴자 12,151명 중 개인에게 부여된 ID와 초기 패스워드로 로그인한 3,434명(ID 발행자의 28.3%)
- ※ 전공 : 자연과학, 공학, 농학, 보건, 인문, 사회 등 전분야
- 참가대학 유형: 국립대학 21, 공립대학 3, 사립대학 2
- 응답률: **1,051명**(30.6%) * **재학생 1,003명**/3,027, **수료생 48명**/379
- 조사내용: 거주지, 진로희망, 능력·기술 인식, 박사과정에 대한 만족도, 박사과정 수료후 직업

☐ 재학생 조사결과, 박사과정 수료후 **일본에 거주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한 비율이 **65.2%**, 학계진출 **39.4%**, 연구개발직 종사 **61.2%**의 선호도를 나타냄

○ 국적별로 보면 **일본인의 76.8%**가, **외국인의 35.1%**가 일본 국내 거주를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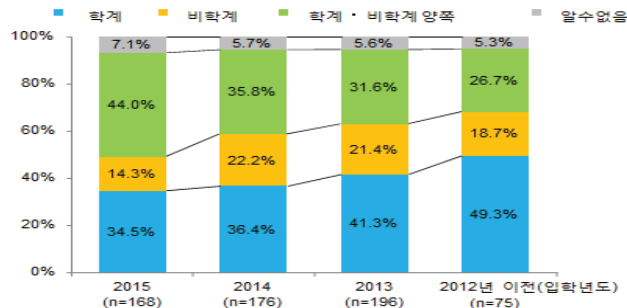
< 박사과정 수료후 거주를 희망하는 국가·지역(재학생·국적별) >



○ 박사과정 수료 후 희망 진로 관련 재학생의 39.4%가 학계 진출을 응답

- '12~'15년까지 변화 추이를 보면 학계진출을 희망하는 비율이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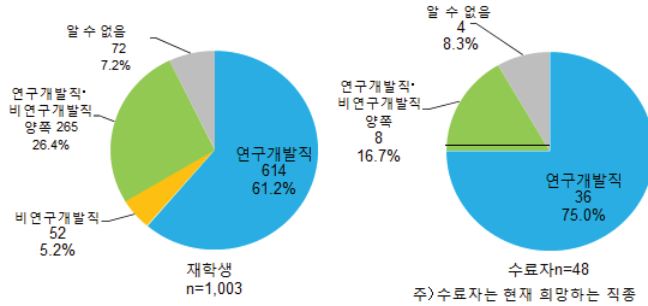
< 박사과정 후 희망 진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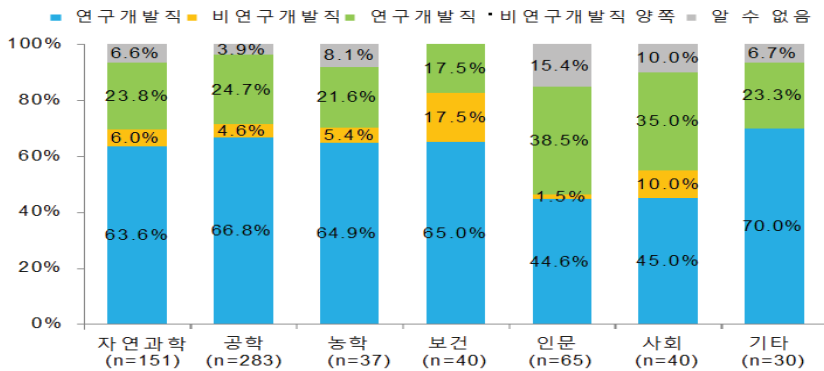


○ 희망직종 분야는 재학생, 수료자 모두 연구개발직을 선호(61.2%, 75.2%)

< 박사과정후 희망 직종 >



< 분야별 박사과정후 희망 직종 >



- 박사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재학생 및 수료자 모두 '매우 만족하고 있다' 혹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가 80% 이상의 답변
- 갖추고 싶은 역량은 연구수행(512), 전문지식(479), 논리적 사고력(251), 과제설정능력(191), 문제해결력(160) 등 순위로 나옴
- 재학생의 박사과정 학비 자급에 대해 조사한 결과, TA·RA 이용이 47.1%, 수업료 감면 조치가 34.8%, 일본 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이 26%, 국비 유학생이 11.4% 임

출처 : NISTEP(2016.6.7)

<http://www.nistep.go.jp/wp/wp-content/uploads/NISTEP-RM250-SummaryJ.pdf>

<http://www.nistep.go.jp/wp/wp-content/uploads/NISTEP-RM250-FullJ.pdf>

5. 일본, 「2016 경제재정 운영 및 개혁 기본 방침」 발표

- ☐ 내각부 산하 각료회의에서 「경제재정 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이 결정(16.6.)
 - '01년 고이즈미 총리에 의해 제창된 정책의 기본골격으로, 매년 6월 내각부 산하 경제자문회의에서 결정됨
 - 주요 내용으로 ①현재 일본경제의 과제 및 기본 방향성, ②성장·분배의 선순환 실현, ③경제·재정 일체개혁, ④2017년 예산편성을 위한 기본적인 입장 등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

- ☐ 본 방침중 과학기술 혁신 관련된 내용으로 성장전략의 가속화를 위한 **인재육성, 교육활성화, 연구개발촉진** 등이 포함

[인재육성]

- 교육 연구거점 강화 및 초·중등 교육단계에서 최고 수준의 연구자까지 체계적인 인재 육성
 -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새로운 고등교육기관 제도화 검토, 세계 최고수준의 탁월대학원 구체화, 고등전문학교 교육 강화 등

[교육 활성화]

- 세계 최고 수준의 학문 달성 및 기초 학문 제고, 외국인 유학생, 연구자 영입을 통한 대학 국제화, 고교-대학 교사간 연계를 통한 직업교육 추진

[연구개발투자 촉진]

-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관련 기술 로드맵 작성, 새로운 핵심 기반기술 강화, 기초연구 추진, 산·학·연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 '20년까지 민관 연구개발투자를 GDP대비 4%로 늘리는 것과 함께 **GDP 대비 정부연구개발투자를 1% 달성** 목표

* OECD MSTI 2014-1('13년 기준) : '미국(0.79), 일본(0.75), 한국(1.14), 독일(0.92), 영국(0.57)

※ GDP 명목성장율을 산정시,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내 정부연구개발비 26조엔 요구

출처 : 내각부(2016.6.2)

http://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2016/summary_ja.pdf

http://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2016/2016_basicpolicies_ja.pdf



6. 중국, 시진핑 주석 등 중국 지도부 과학기술 전략 제시

☐ '16.5.30일 과학기술혁신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과학기술 육성 전략을 제시('16.5)

* 과학체제 개혁 심화를 위한 대규모 정부 회의로 중국 과학기술이 직면한 새로운 상황을 분석하고, 체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

※ '16.5.30.(북경 인민대회당) 국무원 주최로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관련 인사 4천 여명이 참석

○ (비전) 2049년(신중국 건국 100주년)까지 과학기술 강국 발전

○ (방향) 규제철폐, 과학인재 육성, 과학연구 분야 재정 확대, 과학문화 보급 등 구체적 실현방안 마련

< 시진핑 과학기술 육성 방안 >

방향	발언 내용
전략: 과학기술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해 주요 원천기술을 부단히 개발하고 확보해야 함 ○ 세계 일류급 과학 연구기구, 과학 연구형 대학, 혁신형 기업 보유가 급선무
목표: 과학기술 강국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혁신형 국가 대열 합류 ○ (2030년) 혁신형 국가 선두 진입 ○ (2049년) 세계 과학기술 강국 발전(신중국 건설 100주년)
혁신: 규제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체재 개혁 필요 - 정책 결정의 민주화, 예산 배분 및 정산 합리화, 평가제도
인재: 과학기술전문가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급 과학기술 인재 및 기관 육성 - 과학자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여 과학 연구의 비효율적 행정 문제 개선 - 행정기관들은 계획 수립 및 서비스 등에 집중
과학기술 보급: 과기혁신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전반적으로 과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중들의 과학적 흥미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 리커창 총리도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조치 제시

< 리커창 과학기술 육성 방안 >

방향	내용
기초연구분야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까지 연구개발비 GDP 비중을 2.5% 달성 ○ 국가실험실, 종합국가과학센터 등 수준 높은 혁신 플랫폼 구축 ○ 과학영역에서 대학의 역할 발휘 및 기업 참여 적극 유도
응용연구 산업화 장애요소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을 주체로 한 시장 주도 혁신 메커니즘 구축 ○ 국가 중점 과학기술사업과 프로젝트 추진
과학혁신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기반 개방적이고 상호 공유하는 혁신 체제 구축 ○ 대중창업 만중혁신과 지역 혁신전략을 연계
체제 개혁을 통한 과학기술혁신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나 기업의 권한을 하부기관에 이양 ○ 인재선발, 인센티브 배분 등에 연구기관과 대학교에 더 많은 권한 부여 ○ 간접비, 인건비 비율 제고, 과기성과 소유권 제도 개혁, 연구원 연구성과 수익금 배분 비율 제고 ○ 기업가 정신 확산 ○ 연구개발활동 평가 메커니즘 개선

출처 : 시나닷컴 (2016.5.31) 외

<http://news.sina.com.cn/zl/2016-05-31/doc-ifsqxqs7994671.shtml>

http://news.ifeng.com/a/20160531/48879907_0.shtml



7. 영국, 주요국 혁신기관 활동 사례 조사

□ 영국 국립과학예술재단(NESTA)*는 주요국 혁신기관 10개를 선정하여 혁신기관의 역할 및 바람직한 방향을 분석한 사례 보고서** 발간('16.6.)

* 민간 부문 혁신을 위해 재정 및 기타 재원을 지원하는 정부기관

** How Innovation Agencies Work: International lessons to inspire and inform national strategies

○ 혁신기관들은 직접적인 혁신자보다 펀드 지원자의 역할을 담당

- 재정적 지원(기금, 융자, 기타), 비재정적 지원(자문, 벤치마킹 서비스), 중개기관 지원, 연계 및 기관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

< 10개 혁신기관 주요 지원 유형 >

국가	기관	재정지원			비재정적 지원	중개기관 지원	연구소 연계	내부 프로젝트
		기금	융자	기타				
오스트리아	연구진흥청(FFG)	○	○	○	○	○	○	
브라질	과학기술재단(FINEP)	○	○	○	○	○	○	
칠레	경제개발청(CORFO)	○	○	○	○	○	○	
핀란드	기술혁신지원청(Tekes)	○	○	○	○	○	○	
이스라엘	수석과학관실(OCS)	○	○		○	○	○	
스웨덴	기술혁신청(VINNOVA)	○			○	○	○	
스위스	기술혁신위원회(CTI)	○			○	○	○	
대만	공업기술연구원(ITRI)	○			○	○	○	○
영국	기술전략위원회(Innovate UK)	○				○	○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		○			○	○

○ 주요 혁신기관들의 공통된 지원 조치들은 다음과 같음

구분	유형	사례
재정적 지원	R&D 기금(grant)	VINNOVA는 예산의 10%를 스웨덴의 주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과제 R&D기금에 투자
	전환가능 기금	OCS는 펀드의 일부를 프로젝트 비용의 50~60%까지 지원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로열티는 OCS 기금에 포함
	융자	Tekes는 신제품, 서비스, 비즈니스모델 테스트 지원의 저금리 이자 대출 지원
	지분투자	FINEP는 브라질 전략 혁신과제에 직접투자 및 펀드 투자
	정부 벤처캐피탈	Tekes 벤처캐피탈회사는 고위험 R&D 프로젝트의 초창기에 투자
	R&D 조세 혜택	FFG는 오스트리아 회사를 선정하여 R&D의 최대 12%까지 조세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 운영
	장려상	DARPA는 'grand challenges' 신규 솔루션을 개발을 위한 장려상 운영
	R&D 과제 계약	Innovate UK는 SBRI(중소기업연구진흥계획)를 수립하여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공공부문간 연계로 도전과제 해결

구분	재정	사례
비재정적 지원	지식 서비스	CTI는 예산의 10%를 잠재적 고성장 비즈니스 대상 멘토링 및 코칭 프로그램에 활용
	비즈니스 개발 서비스	2005년부터 ITRI의 '오픈랩'은 창업기업들이 신제품을 테스트 할 수 있는 시설 및 관련 서비스 공급
	파트너 알선	FFG는 유럽펀딩프로그램(Horizon2020)의 현지 컨텍포인트로, 파트너 알선 지원
	혁신경영 교육	Tekes는 기업 대상 혁신 워크샵 등 프로그램 운영
중개지원	보조금 펀딩	CORFO는 칠레 인큐베이터나 엑셀레이터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네트워크 및 기관 설립 활동	지식 및 기술이전 활동	Innovate UK는 기업내 대학원생을 연계하는 지식이전 파트너십을 운영
	전략 센터	Tekes는 핵심분야 R&D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센터 설립에 관여
	연구 컨소시엄	ITRI와 OCS는 기술·산업 관련 연구 컨소시엄을 지원
	국제 협력	BIRD(Bi-National R&D USA-Israel) 재단은 신제품 공동 개발 및 판매를 위한 재정 지원

☐ 혁신기관은 시장체제 개선, 산업 구축, 혁신 유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시스템 최적화 기능이 필요

< 혁신기관 역할 >

[1] 시장·시스템 조정 (Market and system fixer)	시장과 시스템 내에서 특정 기술에 국한되지 않는 전방위 R&D 투자
[2] 산업 형성 (Industry builder)	녹색, 나노기술 등 신기술 개발 투자로 경쟁력 원천 창출
[3] 혁신 유도 (Mission drivers)	국방, 에너지, 환경, 보건 등 대표적 R&D 정책 과제 해결
[4] 체계 최적화 (System optimisers)	지속적인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및 효과적 혁신 시스템 구축

○ 혁신기관 설립 관련 고려사항으로 명확한 임무, 효율적인 관리구조, 적절한 방법, 성과 측정 지표 수립 등을 제안

- **혁신기관의 표준화된 성공 모델은 없고**, 국가별 다양한 형태의 혁신기관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므로 국가의 상황에 적합한 혁신기관의 벤치마킹이 필요

출처 : 영국국립과학기술예술재단 (2016.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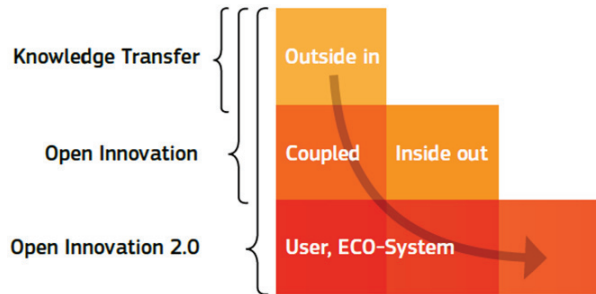
http://www.nesta.org.uk/sites/default/files/how_innovation_agencies_work.pdf



8. EU, 개방형 혁신 관련 유럽 비전 제시

- ☐ 유럽 집행위원회는 Horizon2020 프로그램과 EU 연구분야 강화를 위해 3대 오픈 정책* 발표('16.5.)
 - * Open Innovation, Open Science, Open to the World
- 연구와 혁신은 고용력 증대와 신제품 개발 투자 기회를 창출하며,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가능하게하고, 과학 발전을 뒷받침해 주는 핵심 요소임
 - 과학지식 생산과 전달의 단순한 패턴에서 벗어나 디지털시대 사용자의 참여로 새로운 혁신과 참여 생태계 구축
- ☐ EC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 오픈 유럽(open to the world)에 대한 전략적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
 - **개방형 혁신** 개념은 현재 개방형 혁신 2.0 개념으로 발전하여 시민 및 사용자들이 가치 창조의 참여자 역할 담당

< 개방형 혁신 2.0 개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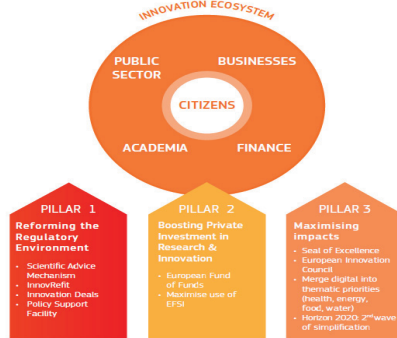


- 혁신의 우선순위로 규제환경 개선, 민간투자 확대, 영향력 극대화를 제시

< 개방형 혁신 우선순위 >

구분	내용
규제 환경 개선	과학 자문 체제 확대, 정책 지원 확대 InnoRefit: 혁신에 저해 또는 촉진되는 규제 연구 Innovation deal: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
민간투자 확대	유럽펀드를 사용할 혁신기업 투자 혁신투자펀드 사용 확대
영향력 극대화	Seal of Excellence(우수연구인증 프로그램) 추진 유럽 혁신위원회 구성 디지털기술확대(보건,에너지,농업,수자원 분야) Horizon2020 펀딩 절차 간소화

< 개방형 혁신 우선순위 >



- **오픈 사이언스**는 협업, 디지털 기술에 바탕을 둔 새로운 협력 과학 프로세스로, 사용자가 생산자처럼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

< 오픈 사이언스 연구 프로세스 >



- **오픈 사이언스 클라우드**는 연구데이터를 보관하여 유럽 연구역량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
- **세계를 향해 열린 유럽(Open to the World)**은 연구와 혁신의 국제협력을 통해 최신 지식 및 최고 인재 획득, 국제적 도전과제 공동협력, 비즈니스 창출, 과학정책을 통한 외교적 영향력 강화하는데 있음
-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EU 차원의 연구 펀딩, IPCC와 COP21 국제회의에서 EU 연구결과 활용, 남미 녹색교통분야에 유럽의 혁신 결과 적용 등을 실현

출처 : 유럽집행위원회 (2016.05.30)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news/open-innovation-open-science-open-world-vision-europe>

I 주요 동향(2) : ICT

1. EU, 미국 콘텐츠 규제 강화... '콘텐츠 쿼터제' 추진

- 디지털 콘텐츠의 생산·유통 장려, 소비자의 콘텐츠 이용권 보장을 위해 정책 마련
 - EU 집행위원회는 EU에서 사업하는 영상 스트리밍 업체는 콘텐츠의 최소 20%를 유럽 영화와 유럽 TV프로그램으로 채울 것을 요구(5.25)
 -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의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유럽 제작 콘텐츠를 눈에 띄게 표시하고 유럽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방안도 포함
 - 현재 유럽의 방송사업자에게만 의무화하고 있는 콘텐츠 쿼터제를 스트리밍 사업자에도 적용할 방침으로 넷플릭스·아마존·유튜브 등 미국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이번 규제는 유럽 콘텐츠가 사장되는 흐름을 방지하는 한편 유럽에서 제작되는 영상물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
 - EU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의 BBC 등 방송사업자는 매출의 약 20%를 새로운 콘텐츠 제작에 투입하는 반면 스트리밍 사업자는 그 비율이 약 1%로 저조
 - 또한 이 날 발표한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은 EU 전역에서 지역적 차별 없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 및 구매할 수 있도록 EU 내 온라인 쇼핑 장벽을 철폐
 -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전자상거래 업체는 국경을 넘는 온라인 쇼핑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해야 하며 구매 청약과 배송 등에서 어떠한 제한도 금지
 - ※ 현재 온라인 쇼핑의 불편과 비용 때문에 EU 소비자의 15%만 다른 나라에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EU집행위)
 - EU 집행위의 콘텐츠 쿼터제와 새로운 전자상거래 규정은 유럽의회와 EU 각국의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
 - '17년부터 영화와 TV 프로그램 등 온라인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할 계획
 - 한편 넷플릭스는 EU의 쿼터제는 저렴한 방송을 골라 채워 놓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알고리즘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

- 사업자에게 쿼터를 부과하기보다 콘텐츠 제작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

■ EU와의 공동제작 등을 활용해 유럽 콘텐츠 시장을 공략할 필요

- 한국-EU FTA가 '15.12월 전면 발효되면서 시청각물 공동제작 과정에서 일정 조건 충족 시 양국에서 자국산으로 인정(KOTRA, 4.27)
 - EU에서 자국산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EU의 방송콘텐츠 쿼터(자국산 10% 이상 방영 요건¹⁾)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EU 문화산업 육성 정책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을 의미
 - ※ EU는 '14~'20년 간 총 1조 8,900억 원(14억 6,000만 유로)의 크리에이티브 유럽(Creative Europe)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국의 TV 방송콘텐츠와 국제 합작을 지원
- 이번 쿼터제 시행으로 넷플릭스·유튜브 등 거대 콘텐츠 기업의 입지가 기존 대비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자본력과 현지 배급망을 갖춘 EU 기업과 공동 제작에 유리해진 여건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

출처 : 연합뉴스 (2016.5.25) 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5/0200000000AKR20160525191900098.H>
TML?input=1195m

<http://www.bbc.com/news/technology-36378078>

1) 이번 규정 이후 20%로 상향될 예정

2. 美 항소법원, 망 중립성 합법...콘텐츠·통신사 업체 희비

- 미국 항소법원은 ‘망 중립성’의 현행 근거 법령이 합법이라고 판결(6.14)
 - 연방항소법원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미국통신업협회·AT&T·센추리링크 등 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등이 FCC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2:1로 기각
 - 다수의견을 낸 데이비드 스티븐 테이텔과 리 스리니바산 판사는 FCC가 인터넷 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을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와 유사하게 취급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
 - 반면 스티븐 페인 윌리엄스 판사는 소수의견에서 ‘열린 인터넷 명령(Open Internet Order)²⁾’을 무효화하는 것이 옳바르다는 견해를 제시
 - ※ 열린 인터넷 명령에 따르면 인터넷 망 사업자를 기간 통신 사업자로 규정해 FCC가 ISP에 망 중립 원칙을 지키도록 요구 가능. 즉, 요금 책정에 연방 정부가 관여할 수 있으며 ISP가 고속 회선으로 추가 요금을 받는 행위 등을 금지
 - FCC는 이번 결정이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업체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한편 제공업체가 경쟁업체보다 자사의 서비스를 선호하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중요하다고 언급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인터넷 서비스를 공익사업과 같이 규제함으로써 FCC는 소비자 보호를 촉구한 이후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공익사업으로 재분류했으나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두 차례나 망 중립성을 거부
- DC 구역 연방항소법원이 망 중립성 원칙 시행에 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린 것은 ‘10년, ‘14년 이후 3번째며 근거 법령이 합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
 - (‘10년 ‘컴캐스트-FCC’) 망 중립성 규제의 근거 법령이 없다고 판시하고 규제 시행을 중단
 - 이에 FCC는 기존 통신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규제 법규를 근거로 ‘열린 인터넷 명령’을 공포하고 인터넷 통신서비스 업체에 망 중립성 규제를 부과
 - (‘14년 ‘버라이즌-FCC’)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은 정보제공업으로 분류돼 법률상 통신사업이 아니라며 제동

2)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 원칙을 위해 통신 사업자에 의무를 부여하고 연방 정부가 요금 결정에 개입하는 규제

- FCC는 인터넷 통신서비스 사업자를 법률상 공중통신사업자(common carrier)로 다시 분류하고 '15.4.13일 공식 발표, '15.6.12일부터 새로운 '열린 인터넷 명령'이 발효

■ 이번 판결은 콘텐츠업체에는 긍정적, 통신업체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자사의 콘텐츠가 차단되거나 속도에 따라 노선이 분류되는 것에 반대해온 콘텐츠업체에는 희소식이나 망 중립성의 무효소송을 주장했던 통신업체의 입지는 좁아질 것으로 예상

- 컴캐스트·버라이즌·AT&T 등은 망 중립성이 비용 회수를 저해하며 브로드밴드 시설의 혁신과 투자를 가로막을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

- 한편 미국의 스트리밍 서비스업체인 넷플릭스가 AT&T·버라이즌 고객에게 제공하는 동영상의 접속속도를 제한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

- WSJ는 넷플릭스가 지난 5년 동안 AT&T와 버라이즌 고객에게 전송하는 모바일 동영상 속도를 600kbps로 제한해 왔다고 보도했으며 넷플릭스 측에서도 사실이라고 시인

※ 사용자가 데이터를 초과 사용해 요금 폭탄을 맞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

- 대표적인 망 중립성 옹호자인 넷플릭스가 스스로 차별을 자행했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이나 FCC휠러 위장은 월레 회의(4.1)에서 "FCC는 '엡지 프로바이더'에 대해 규제하지 않는다"고 언급

- 반면 미국케이بل협회는 FCC가 엡지 프로바이더의 (속도 제한) 관행과 함께 인터넷 개방성을 위협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하며 콘텐츠 제공업체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

■ 5G 기술에 의한 혁신과 시장 창출 효과를 위해 망 중립성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함

- 5G 시대엔 '네트워크 슬라이스'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마다 맞춤형 통신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망 중립성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 (LG경제연구원)

- 하나의 통신망이 다양한 IT서비스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없으므로 5G에서는 다수의 네트워크처럼 동작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스(Network slice)' 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

3)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콘텐츠 제공업체를 지칭



- 그러나 통신사가 특정 서비스 회사에게 맞추어진 네트워크 슬라이스와 같은 차별화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망 중립성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농후
- 이에 네트워크 슬라이스에 대한 경직적인 망 중립성 원칙 적용이 기술 혁신과 소비자의 후생을 제한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

출처 : 연합뉴스 (2016.6.15) 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15/0200000000AKR20160615002500091.H
TML?input=1195m](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15/0200000000AKR20160615002500091.HTML?input=1195m)

<http://www.lgeri.com/industry/electronic/article.asp?grouping=01030200&seq=587>

<http://www.wsj.com/articles/netflix-throttles-its-videos-on-at-t-verizon-phones-1458857424>

3. EU, '헤이트스피치' 차단 위해 미국 IT기업과 협업

- 미국 IT 업체와 소셜미디어로 유포되는 '헤이트스피치' 금지 협약을 체결
 - 최근 테러 집단이 헤이트스피치 등으로 선동을 시도, 특히 소셜미디어가 젊은 집단을 극단화하는 도구로 이용됨에 따라 EU는 강경 대응을 결정
 -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하드(이슬람 성전) 전사를 모집하는 등 사이버 공간이 극단주의 세력의 선전장으로 이용
 - 지난 '15.7월 유럽공동 경찰기구인 '유로폴(Europol)' 산하에 '대(對) 테러 웹부대'를 창설하는 등 극단주의 세력의 온라인 선전을 차단
 - 이어 소셜미디어를 보유한 미국 IT기업(구글·트위터·MS·유튜브)과 헤이트스피치를 포함한 불법적인 온라인 게시물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5.31)
 - 기업은 전문 인력을 고용해 불법 콘텐츠를 가려내고 필요할 경우 이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하며 향후 헤이트스피치에 대응하는 '대항 담론'도 적극 개발하기로 합의
 - ※ 한편 헤이트스피치를 명확히 판단할 기준이 없는 가운데 판단 권한을 기업에 넘길 경우 기업 입장에서 불리한 발언을 모두 삭제할 수 있는 무기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 독일·프랑스에서도 온라인 상 헤이트스피치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대응
 - (독일) 구글·페이스북·트위터는 독일 정부와 자사 웹사이트에 게재된 헤이트스피치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하기로 합의('15.12.15)
 - 이 같은 합의는 '15년 100만 명에 달하는 난민이 독일로 유입되는 위기 속에 독일 온라인에 인종차별적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 속에 진행
 - 독일 법무장관 하이코 마스는 3사 내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불만을 처리할 특별팀을 구성할 것이며 불만 처리는 각 사의 운영 규정이 아닌 독일 법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
 - (프랑스) 프랑스유대인학생연합(UEJF)·인종차별 반대단체 'SOS라시즘'·동성애 차별 반대단체 'SOS 오모포비'가 페이스북·트위터·유튜브가 헤이트스피치를 방치했다며 소송 제기(5.16)



- 헤이트스피치 해결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하는 문제 게시물 586건을 찾아내 각 사이트에 신고한 결과 페이스북 34%, 트위터 4%, 유튜브 7%만 해당 게시물을 삭제
 - ※ '16.3.31~5.10일까지 유대인 증오, 인종차별, 테러 옹호 발언 등이 담긴 글과 영상 등으로 실험
 - ※ 프랑스 법에서는 인종이나 동성애 차별, 反유대 게시물을 인터넷에서 삭제하도록 지시
- ☐ 인류 보편의 가치 규범과 충돌하는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검토 필요
- 헤이트스피치는 폄하하는 발언에서 시작해 폭력·테러 등 범죄행위로 드러날 수 있어 미국·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 최근 일본 중의원도 본회의를 열고 '본국(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안'을 찬성 다수로 통과·성립(5.24)
 - 헤이트스피치의 법적 규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가 될 수 있으나 편견·폭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국내도 타인의 정상적 법 감정이나 사회 질서 유지 관점에서 방안을 마련할 필요

출처 : 전자신문 (2016.6.1) 의

<http://www.etnews.com/2016060100001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16/0200000000AKR20160516187900081.H>

TML?input=1195m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16_0010480822&cID=1010

1&pID=1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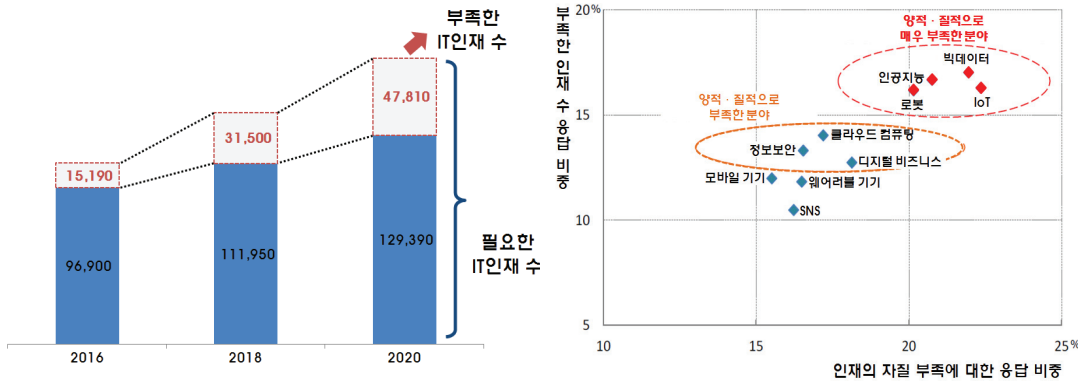
<http://news.joins.com/article/20074256>

<http://www.bbc.com/news/technology-36416967>

4. 일본, 첨단 IT 인재 확보를 위한 정부 · 기업 움직임 분주

- 경제산업성, 미래를 이룰 IT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현황과약 및 대응방안 검토
 - 인공지능·사물인터넷·빅데이터·정보보안·로봇 등 첨단기술의 고도화·다양화가 진전되면서 IT 전문인력 수요도 동반 증가할 전망
 - 그러나 일본은 생산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향후 IT 인재 부족에 대한 우려 확산
 - IT기업과 관련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공지능·사물인터넷·빅데이터·로봇 분야에서 인재 부족 현상이 매우 높을 것으로 응답
 - ※ (첨단 IT 인재 수요) '16년 약 11만 2,000명 → '20년 17만 명 돌파 전망
 - ※ (부족한 IT 인재 수) '16년 약 1만 5,000명 → '20년 4만 7,810명
 - 첨단 IT산업은 국가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양질의 자질을 갖춘 풍부한 인재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며 일본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착수
 - ▲여성·노인·외국인 IT 인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정비 ▲한정된 IT인재를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전략적 배치 ▲다양한 교육·연수 기회 제공을 통한 인적자원 역량 강화 등을 제시

< 일본 IT 인재 수요 예측과 분야별 현황 >



※ 주) 설문조사는 IT기업(1,000명), 인터넷 기업(300명), 일반 기업의 IT관련 담당부서(3,000명)를 대상으로 '16.3월 실시한 결과
 ※ 자료 : 경제산업성, '16.6.10

- 한편, 주요 전자·자동차 분야 대기업 중심으로 인공지능 인력 확보 경쟁 가열
 - 일본 주요 대기업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인공지능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채용 방안을 마련



- (소니) '17년 봄 입사부터 인공지능 연구 신입사원 채용 항목(머신러닝 인공지능 연구개발 과정)을 신설해 전문 연구원을 모집할 계획
 - 지난 5월 미국 유망 인공지능벤처에 출자하고 공동연구를 시작한 만큼, 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가능한 많은 인재를 채용해 인공지능 연구를 본격화할 예정
- (히타치)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개설한 사물인터넷 기반 기술개발 거점에서 '17.3월까지 인공지능 연구자 등 100명의 인재 선발을 추진
 - 일본 내 연구인력 100명도 현지에 파견해 200명 규모의 연구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그리드 등 인프라 개발, 전력수요 예측과 같은 다양한 연구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기대
- (혼다) 오는 9월 도쿄에 100여 명 규모의 인공지능 연구거점(혼다 혁신연구소 도쿄)을 설립해 자율주행과 직관적 조작이 가능한 휴먼인터페이스 연구개발을 진행할 방침
 - 이미 '03년 뇌연구와 시각·청각을 활용한 첨단 인공지능 기술 연구소 '혼다·리서치 인스티튜트(HRI)'를 구축하는 등 인재확보 노력을 지속
- 이 외 도요타·파나소닉은 최근 도쿄에 '첨단 인공지능 교육 강좌'를 개설해 연간 150명 인공지능 연구원 양성에 돌입

■ IT강국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 첨단 기술분야 인재 확보는 필수

- 초 고령사회로 진입하며 노동인력 부족에 직면한 일본은 국가경쟁력 강화,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첨단 IT분야 인재 확보에 총력
 - 특히 사물인터넷·빅데이터·로봇 등의 핵심 인프라이자 두뇌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가치와 중요성을 인지해 인공지능 전문가 양성에 박차
-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이해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바, 우수한 IT 인재 육성·지원·유치 등을 통해 혁신창출, 생산성 제고 등을 도모하며 경제성장 기폭제로 활용할 필요
 - 지난 3월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 마련에 이어 5.16일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추진협의회'를 발족하는 등 인공지능 연구 역량과 인력을 결집하기 위한 행보 본격화

출처 : 경제산업성 (2016.6.10) 외

<http://www.meti.go.jp/press/2016/06/20160610002/20160610002-7.pdf>


<http://www.nikkei.com/article/DGXLZO03443930Z00C16A6T11000/>

http://www.nikkei.com/article/DGXLASDZ02HRC_S6A600C1TJC000/




II 단신동향


1. 해외

※ 제목 클릭 시 원문 링크(URL)로 연결됩니다.


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미국	<p><u>디지털 매칭 산업에 대한 보고서 발표</u> (상무부 / 2016.6.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무부 경제통계국* 산하 수석경제연구원실은 우버나 Airbnb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매칭 기업을 정의하고, 이들 기업의 크기, 범위, 잠재적 과급효과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 DOC Economics and Statistics Administration ** Digital Matching Firms: A New Definition in the “Sharing Economy” Space ※ 본 보고서가 정의하는 디지털 매칭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IT 시스템을 활용해 개인 대 개인(P2P) 거래를 촉진 ② 사용자 기반의 평가 시스템을 통해 품질관리를 함 ③ 디지털 매칭 플랫폼을 통해 근로자에게 근무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 ④ 근로자가 서비스를 위한 도구 및 자산을 투자 - 본 보고서는 2014년 현재 디지털 매칭 산업의 규모를 약 150억 달러(약 17조 8,000억원)로 추산하고, 2025년까지 약 3,350억 달러(약 4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p><u>혁신 촉진을 위한 국가간 서비스협정의 필요성</u> (정보기술혁신재단 / 2016.6.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혁신을 촉진하는 국가 간 서비스협정(TiSA)*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표 * Trade in Services Agreement: 서비스 산업의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 일본, 한국 등 23개국이 논의하고 있는 협정으로, 타결될 경우 상대적으로 시장 개방이 덜 되었던 의료, 운송, 디지털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해외 진출 및 경쟁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 ** Crafting an Innovation-Enabling Trade in Services Agreement ○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부문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대한 비차별적이고 개방적인 시장 및 투자에 대한 접근 제고 - 참여국이 향후 타 국가와 협정을 체결할 시 시장 개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촉구 - 전자 상거래, 데이터의 자유로운 교류 등을 보호, 지원하는 새로운 규제 고안



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미국 	<u>빅데이터 연구개발 전략계획 공개</u> (백악관 / 2016.5.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정부는 빅데이터 R&D 전략 계획*을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Federal Big Data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ic Plan - 이번 전략은 신형 빅데이터의 기능을 강조하고 연방 빅데이터 연구개발 계획을 확장하기 위한 지침 - 15개의 연방 기관이 빅데이터 수석 운영 그룹*(BD SSG)의 주도로 운영될 예정 * Big Data Senior Steering Group ※ 네트워킹 정보 기술 연구 개발(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프로그램 하에 계획서 작성 ○ 한편 미국 정부는 빅데이터 기술을 개발하는 활용하는 데이터 과학자 양성을 위해 '12년 빅데이터 연구 개발 이니셔티브*를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g Data Research and Development Initiative
	<u>국가 로보틱스 계획 5년 기념 행사 개최</u> (국립과학재단/ 2016.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로보틱스 계획(National Robotics Initiative, NRI) 시행 5년을 맞아, 의회 로보틱스 회의* 개최(6.9, 토론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gressional Robotics Caucus - 이번 행사에는 산업계, 학계, 정부의 전문가 패널 토론, NRI 프로젝트 연구성과 소개 등을 통해 대중의 인식을 제고 - 국가 로보틱스 계획에는 NSF, NASA, 국립보건원, 농업부, 국방부, 에너지부 등이 참여하여 협력 로봇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 노력 중 - 이번 로보틱스 회의는 미국의 로보틱스 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에 집중하기 위하여 2007년에 구성됐으며, 농업, 광업, 물류, 국방, 교육, 제조, 보건 등에서 로보틱스 활용사례를 소개
일본 	<u>사립대 연구블렌딩사업 공고</u> (문부과학성 / 2016.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부과학성은 독창적인 연구를 실시하는 사립대학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립대연구블렌딩사업」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예산에서 72억 5000만엔 확보 ○ '16년 선정 예정 학교는 단기대학을 포함하여 30~40곳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위원회에서 두 가지 유형*의 사업으로 나누어 심사하여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지역의 경제 및 사회,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전개형, ② 첨단적·국제적 연구를 추진하는 세계전개형 - 각 학교마다 사회 전개형, 세계 전개형 각각 1건씩 신청 가능하며, 사회전개형의 경우 3대 도시권 및 정원 8000명 이상의 대학은 신청 불가



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사립대 경상비 보조금의 특별보조로서 2000~3000만엔을 상정 - 연구시설 및 설비가 필요한 경우는 계획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로 보조 - 연구가 5년일 경우 4년째에 3년간 중간평가 실시 - 선정된 사립대학은 각 학교의 홈페이지 등에 각 연도별 사업진척상황에 대하여 자기평가, 외부평가를 공표
	<u>글로벌 네트워크협의회 발족</u> (문부과학성 / 2016.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산업성은 내각관방 및 문부과학성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일본판 이노베이션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협의회」 발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지역 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고 지방에서 이노베이션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일본인 인재 25명으로 구성된 「글로벌 코디네이터」를 조직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협의회」와 약 200개 프로젝트를 지원, 지역기업의 뛰어난 기술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활약하는 창업가, 일본 최고의 경영 컨설턴트, 저명한 벤처캐피탈리스트, IoT·로봇 등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젊은 기술자 등 최고의 인재가 집결하여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강력히 지원 - JETRO,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산업기술융합연구소, JST 등 관계기관의 자원을 총 동원하여 전면적 지원 - 민간사업과의 연계: 금융기관 및 인재파견회사 등과 연계하여 이용 가능한 전문적 서비스 소개 - 프로젝트 별 진척상황 관리: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지원
	<u>연구개발 부감보고서 -연구개발의 새로운 동향(2016년)</u>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 / 2016.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는 각 분야별 연구개발의 동향 등을 정리한 「연구개발의 새로운 동향(2016년)」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감(전망)보고서는 2년마다 개정하여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번 보고서는 '15년 보고서를 보완 하면서 '15년 4월 이후 새롭게 주목되고 있는 연구개발의 트렌드, 주제 등을 선정하여 주제별 연구개발동향을 정리





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과학·임상의학 분야: <i>in vitro</i> 실험기술, 촉각 응용 디바이스, 토양·환경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평가 및 제어기반기술, 향후 생명과학·임상의학 분야 연구개발 방향성 등 - 나노테크놀로지·재료분야: 초고압하 황화수소의 초전도 상태 발현, 나노테크놀로지 영역의 나노와이어 응용연구, 미국의 나노테크놀로지 이니셔티브 동향 - 환경·에너지분야: 수소사회의 실현을 향한 수소의 제조, 운송, 저장, 이용 - 정보과학기술분야: Reality 2.0, 知的 컴퓨팅* <p>* 정보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지식 창조를 촉진함으로써 과학적 발견 및 사회에 대한 적용을 가속화하는 것</p>
<p>일본</p> 	<p><u>지자체, 자율주행버스 '17년 시험 운행 결정</u> (AI타임스 / 2016.6.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시카와현 스즈시는 '17년 시청과 병원 간 자율주행 자동차를 투입해 시민이 버스처럼 이용하는 실증실험을 시작할 방침 - '15년부터 가나자와 대학연구팀이 독자 개발한 시스템을 승용차에 탑재, 운전석에 담당자가 동석해 시범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 - 그동안 주행 시험에서 사고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실증실험으로 안정성을 입증할 계획 - 스즈시는 고령자가 많고 버스 배차 간격이 멀어 이번 실증실험을 계기로 자율주행버스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
	<p><u> 대기업, 인력채용 및 배치에 인공지능 기술 활용</u> (NHK / 2016.6.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소개 회사 '비즈리치'는 미국 인공지능 회사와 제휴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인사평가 시스템 개발에 착수 - 회사가 보유한 인재 이력과 면접 당시 평가내용 등을 DB로 구축하는 작업을 6.14일부터 시작 - DB에는 입사 이후 근무태도, 업무 성과 등도 포함되며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최적의 부서 배치 등을 제안 - 이르면 '17년 1월부터 이 시스템을 이용한 인사평가 사업을 시작할 예정 - 면접 데이터, 입사 후 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효과적인 인사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중국	<p>과학기술부 화거센터의 혁신성과 (과학기술부 / 2016.5.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부 화거센터 장쯔홍(張志宏) 주임은 화거센터의 12·5기간 성과 및 13·5기간 6대 중점임무를 발표 (2016.5.30) ○ 12·5기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창업 환경 개선, 대중창업과 만중혁신 적극 추진 - 국가급 첨단기술산업개발구의 유도 시범역할 발휘 - 기업 기술혁신 주체지위 강화, 과학기술형 기업 혁신 증대 - 과학기술 성과이전 가속화, 과학기술 혁신창업 서비스체계 협동효율 향상 촉진 ○ 13·5기간 6대 중점임무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창업과 만중혁신 본격화 - 첨단기술 개발, 첨단기술산업개발구의 혁신발전 촉진, 국가자주혁신시범구의 시범역할 극대화 - ‘과학기술 성과이전 촉진행동’ 구체화, 기술 자본화 시범 실시 연구 - 창업 인큐베이팅 사슬 개선, 전문화 서비스능력 제고 - 기업성장 서비스사슬 구축,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가속화 - 중국 대중창업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연구, 혁신 창업을 위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
	<p>세계 8대 과학기술이슈에서 중국의 현황 (신화사 / 2016.6.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화사는 세계 8대 과학기술 이슈 관련 중국 수준 발표(2016.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대 이슈 프런티어 기술: 중력파, 웨어러블장비, 가상현실(VR),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자동차, 양자통신, 그래핀, 수소연료전지 - (중력파) 우주 중력파 탐사논증팀 구축, 미래 수 십년간 발전로드맵 착수, 우주 태극계획 업무팀 구축, 2030년 중력파탐사위성 발사 - (가상현실) 많은 기업들이 VR산업에 투입 - (웨어러블장비) 연구개발과 상업화 수준은 선진국 수준, 2015년 중국의 웨어러블시장 판매량은 1,810만대이며, 증가율은 321% - (지능형 로봇) ‘인터넷 플러스: 인공지능 3년 행동 실시방안’은 2018년 1,000억 위안 규모 인공지능시장 응용규모 달성을 제시 -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 자동차는 ‘중국제조 2025’ 과 ‘13.5 자동차산업 발전계획 의견’에 편입 - (양자통신) 중국 최초 양자과학실험위성을 2016년 7월 발사 예정 - (그래핀) 세계 최초로 그래핀 국가표준 제정사업 착수 - (수소연료전지) 올해 4월 ‘에너지기술 혁명혁신 행동 계획(2016-2030년)’과 ‘에너지 기술혁명 중점혁신 행동 로드맵’ 발표



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p>중국</p> 	<p><u>자율주행자동차 시장 공략 위해 자동차·IT기업 제휴 활발</u> (파이낸셜타임스 / 2016.6.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대형 자동차 회사는 글로벌 업체에 맞서 시장 지배력강화를 위해 자국 IT업체와 협력 도모 ○ 중국 최대 자동차업체인 '상하이자동차(SAIC)'는 알리바바와 제휴해 인터넷 가능 커넥티드카 시장 공략을 본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사는 오는 9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SUV 자동차 '로위 RX5' 출시 예정 - '로위 RX5'는 교통체증, 가까운 주유소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운전자 취향에 맞는 음악 서비스도 가능 - 특히 알리바바가 개발한 독자 OS '운OS'를 채택해 구글의 '안드로이드오토'와 애플의 '카플레이'에 적극 대응할 계획 ○ 한편, 바이두도 독일의 BMW와 제휴했으며 최근 자동차 보험업체와 합작사 설립에 나서는 등 자동차 사업 강화
<p>EU</p> 	<p><u>공공자금이 투입된 연구 결과에 대한 오픈 액세스 합의</u> (유럽집행위원회 / 2016.6.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력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공공자금으로 진행된 프로젝트가 출판한 연구 결과에 대해 구독료를 부과하지 않고, 무료로 접근 가능하며, 재사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데에 합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따라, EU 과학장관들은 오픈액세스(Open Access)를 위해 사업 모델을 바꿀 것을 출판사들에게 권고 - 현재 과학 논문의 약 1/4만이 오픈 액세스 기반으로 접근가능하며, 공공자금이 투입된 프로젝트의 결과나 연구는 과학 저널을 구독해야 접근 가능한 상황 - 경쟁력위원회는 논문 및 연구 뒤의 데이터를 공공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EU 회원국의 대학 및 학생들이 재사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 - 다만, 지적 재산권, 보안 및 개인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제한된 액세스 내에 머무를 수 있음 - EU 이사회의 네덜란드 대표는 지난 2년간 오픈 액세스를 주장해 왔고, 네덜란드 대학 협회 및 14개 연구소 컨소시엄은 주요 출판사를 상대로 오픈 액세스를 포함하는 신규 계약 발표

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p>E U</p> 	<p><u>16개 혁신 프로젝트의 빠른 시장 진출을 위한 3600만 유로 투자</u> (유럽집행위원회 / 2016.6.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집행위원회(EC)는 약 3600만 유로의 자금을 Horizon2020 프레임워크의 '혁신으로의 지름길(FTI)*' 계획의 4단계 16개 혁신 프로젝트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st Track to Innovation - FTI 4단계에는 총 263개의 프로젝트가 지원하여 16개국의 72개 파트너가 참여하는 16개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 - 2015년 1월에 FTI가 개시된 이래로 1~4단계를 통틀어 총 1166개의 프로젝트가 지원했으며, 그 중 62개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총 1억 3470만 유로의 자금을 지원받음 - 지원받은 프로젝트 수행기관 중 46%가 중소기업으로 나타남 ○ FTI 프로그램의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I 시장출시에 근접한 혁신 기술 및 활동의 시장 진출을 촉진시키는 바텀-업(Bottom-up) 지원 프로그램 - 이미 시장성을 검증받은 혁신이 지원 대상 - FTI는 2015~2016 기간동안 Horizon 2020 프레임워크 시범 사업으로 총 2억 유로의 자금이 투입
<p>인 도</p> 	<p><u>구글 맵 서비스, 국가 안보 문제로 불허</u> (텔레그래프 / 2016.6.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정부는 거리 모습을 3차원 사진으로 제공하는 '구글 스트리트 뷰(Street View)' 서비스를 안보 위협 문제로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서비스가 시행되면 민감한 시설물이 노출되는지 감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우려 - '08년 166명이 사망한 '뭄바이 테러'와 같은 범행에 사용될 가능성도 제기 * 이 사건에서 테러범이 디지털 사진 등을 활용해 목표물과 주변세부지형을 파악한 사실이 공개 ○ 현재 지리정보규제법을 입안 중이며 이 법이 통과 되면 보안상 민감한 시설을 제외하고 허용 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인도에서는 타지마할이나 뉴델리의 쿠투브 미나르, 레드포트 등 일부만 스트리트뷰 가능



2. 국내

※ 제목 클릭시 원문 링크(URL)로 연결됩니다.

분류	제목 (발간일)	요약내용
주 무 부 처	<u>기초원천 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촉진</u> (미래창조과학부 / 2016.6.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초원천 연구성과를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 촉진 방안」을 본격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중 기초연구 투자 비중은 ‘10년 29.2% 이후 ’15년 36.6%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기초원천 기술은 기술성숙도(TRL)가 낮고, 사업화되기까지 장기간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특성이 있어 사업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음 ○ 기본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니스모델과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화 활동 혁신 - 기술사업화 주체의 전문역량 확보 및 협력 강화 - 기본을 갖춘 우수한 기초원천 지식재산권(IP) 창출 - 분쟁 없는 성과 확산 생태계 조성
	<u>미래부 장관, 8년만에 열리는 ‘OECD 디지털경제장관회의 의’ 참석</u> (미래창조과학부 / 2016.6.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경제장관회의에 부의장으로 참석하여 향후 디지털경제의 미래비전을 논의(6.2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 촉진’ 세션에 참석해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창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플랫폼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소개 - 우리나라가 미래성장동력 중 하나로 집중 육성하는 사물인터넷(IoT)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논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의 사물인터넷 육성정책을 알릴 ○ 또한 OECD 주요 회원국 장관 및 관계 인사*와의 6차례 면담을 통해 창의적 혁신으로 디지털경제의 실현을 추구하는 창조경제에 대한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홀린 짜오 ITU 사무총장, 안드루스 안시프 EU 디지털 싱글마켓 위원회 부위원장 등
	<u>정보보호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u> (미래창조과학부 / 2016.6.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창조과학부는 글로벌혁신센터(KIC)* 워싱턴과 마하 37 (MACH37)** 간 양해각서 체결을 시발점으로 한국의 유망 정보보호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rea Innovation Center(KIC): 미래부가 해외 벤처창업, 현지진출 등을 위해 해외 주요 거점에 개소한 글로벌 창업지원센터

분류	제목 (발간일)	요약내용
주 무 부 처		<p>** 미국의 정보보호 특화 엑셀러레이터로, 미국 중앙정보국·국토보안부·국방부 등 정보보호 관련 국가기구와 방위산업 업체들이 3년간('13~'15) 총 7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p> <p>※ 본 미국 진출 프로그램은 지난 6.9. 발표된 제1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K-ICT 시큐리티 2020)의 일환으로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부와 글로벌혁신센터 워싱턴은 '17년부터 마하 37과 공동으로 우수한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제공 - 동 과정을 이수한 유망 스타트업에 대해 마하 37이 후속 투자를 지원할 계획
	<p><u>한-이스라엘</u> <u>신산업</u> <u>기술개발로</u> <u>성장동력 확충</u> (산업통상자원부 / 2016.6.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통상자원부와 이스라엘 경제부는 상업용 수륙양용 무인기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포도 재배 시스템을 공동개발하기로 합의(6.20) ※ 한-이스라엘 산업기술협력('01.5~'15.12) : '01~'15년까지 양국에서 4,500만불을 조성하여 총 99개 과제 지원 - '상업용 수륙 양용 무인기' : 가볍고 충격에 강한 소재를 사용해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물에 착륙할 수 있어, 개발 성공시 양측은 세계 무인기 시장에 공동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빅데이터를 활용한 포도 재배 시스템' : 포도의 생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한국의 센서기술과 이스라엘의 포도 재배관리 알고리즘 기술을 결합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포도를 생산하는 서비스를 재배자에게 제공
	<p><u>무역환경변화대응</u> <u>기술개발 사업</u> <u>1차 20억원 지원</u> (산업통상자원부 / 2016.6.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기술규제 대응 과제 19개를 공고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시급한 해외진출 관련 기술애로 극복 추진 ※ 핵심 개혁과제중 하나인 '자유무역협정(FTA)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해외진출 확산'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 -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 유형) 최근 증가하는 해외의 기술규제장벽에 대응하여 중소·중견기업이 외국의 기술규격·적합성평가에 부합하는 제품의 개발 지원을 목표로 설정 -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규정대응) 수입부품 사용으로 인해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수출제품에 대해, 기술개발을 통해 중간재를 자체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역내산으로 인정받게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하반기 중 신규 과제기획을 통해 30억원 추가 지원 예정



분류	제목 (발간일)	요약내용
주 무 부 처	<p><u>5월 정보통신기술 수출 131.3억불, 수입 70.5억불</u> (산업통상자원부 / 2016.6.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5월 ICT 수출은 131.3억불, 수입은 70.5억불로 무역수지는 60.8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 - 수출은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품목 중심으로 전년 동월대비 9.9% 감소 - 베트남을 중심으로 아세안, 일본, 유럽연합의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중국, 미국 등은 감소 - 수입은 시스템 반도체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중심으로 증가하며 무역수지 흑자 기록했으며 전체 수지 흑자를 견인
	<p><u>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u> (산업통상자원부 / 2016.6.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 - 유사·중복기능 조정, 비핵심업무 축소, 민간개방 확대, 민간경합 축소, 경영 효율화 등에 초점을 맞춰 검토 -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7월까지 마련하여 이행해 나갈 계획
	<p><u>4천억 규모 학교 태양광 사업 본격 착수</u> (산업통상자원부 / 2016.6.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통상자원부는 학교 전기요금 부담 경감, 학생들에 대한 신재생 체험학습장 제공, 신산업 마중물 투자 확대를 위해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을 본격 추진 - 내년까지 4천억원을 투자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20년간 운영 - 유휴부지인 학교 옥상을 활용해 학생, 학교, 전력공기업, 태양광 업계 등 참여주체 모두가 윈윈할 수 있고 온실 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는 창조적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p><u>개성공단 입주기업, 지방에서 새출발</u> (산업통상자원부 / 2016.6.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4개 업체의 364억원 투자에 대해 보조금 95억원을 지원 - 금번 보조금 신청은 개성공단 중단결정 이후 입주기업들이 지방을 근거로 재기를 준비하는 신호로 해석 - 앞서 정부는 시화공단 지식산업센터 유휴공간을 6개 업체에 1년간 무상 임대하는 등 개성공단 기업의 대체투자 지원을 위해 노력

분류	제목 (발간일)	요약내용
주 무 부 처	<p><u>지역경제 신성장엔진, 서비스산업에서 찾는다</u> (행정자치부 / 2016.6.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자치부는 기재부, 미래부, 문화부, 교육부 등 5개 부처와, 17개 시도 관계자와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지역경제정책협의회」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시도별 서비스 산업 추진상황을 진단 - 협의회에 참석한 17개 시도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공동노력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결의문을 작성 -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이달 중 서비스산업육성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
	<p><u>정부3.0, 이제는 직접 느끼고 체험한다</u> (행정자치부 / 2016.6.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이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정보기술(ICT)을 활용해 관람객에게 가상 체험 환경을 구현하는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정부3.0 서비스를 소개 - 이번 전시에서는 VR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직접 체험에 참여하면서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
	<p><u>청년창업자 입주 가능한 “창업지원주택” 공급근거 마련</u> (국토교통부 / 2016.6.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27일부터 40일간 ○ 개정안에서 청년 창업인을 위해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4.28 대책)에서 창업지원주택을 새롭게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장관은 행복주택 또는 기존주택매입 임대주택 중에서 창업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창업지원주택을 지정 - 창업지원주택의 공급대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창업자와 지자체장이 지역 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 1인 창조기업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 - 창업지원주택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에 주로 공급되는 점을 감안하여 입주자는 행복주택(산업단지형) 입주자의 소득기준과 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분류	제목 (발간일)	요약내용
주 무 부 처	<p><u>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공식 출범</u> (교육부 / 2016.6.27)</p>	<p>○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이 공식적으로 출범(6.27)</p> <p>* 미래 유망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의 자율적인 선도 모델을 지원하여 인력 미스매치 양적 조정 및 학생의 전공과 진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p> <p>- (비전) 미래 인재의 역량을 키우고 대한민국 고등 교육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p> <p>- (추진현황)</p> <p>① 지난 5월 3일, 대형 9개교, 소형 12개교 등 전국 21개교 대학을 프라임 대학으로 선정·발표</p> <p>②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운영 (5.31~6.24) 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p>
	<p><u>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지원을 위한 밀착상담 제공</u> (식품의약품안전처 / 2016.6.15)</p>	<p>○ 식약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지원을 위해 정부 지원 R&D 연구과제별 전담 컨설턴트 운영</p> <p>- 제5차 규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발 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밀착 지원하여 바이오의약품 개발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마련</p> <p>- (주요 지원내용) ▲식약처 관련 업무를 안내할 전담 직원 지정 ▲임상시험 진입 시 제출자료 등에 대한 상담 ▲제품개발 중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적 자문</p> <p>○ 또한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지원을 위한 공개상담'의 날'을 월 2회로 확대·운영</p> <p>* 공개상담: 임상시험 수행 경험이 부족한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연구자와 개발사의 임상시험 승인을 돕기 위한 일대일 밀착 상담으로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에 실시</p> <p>- (주요 상담내용)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관련 규정 ▲비임상시험 계획 타당성 ▲임상시험 설계의 적정성 ▲기준 및 시험방법 등</p>
	<p><u>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팁스(TIPS) 선진화 방안' 발표</u> (중소기업청 / 2016.6.23)</p>	<p>○ 중소기업청은 그간 팁스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을 중점 보완하고,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팁스(TIPS) 프로그램* 선진화 방안」을 발표</p> <p>*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TIPS) : '13년부터 도입·운영 중인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p> <p>○ 주요 정책과제</p> <p>- 팁스 프로그램의 구체적 법적근거 마련(창업지원법 제19조의8)</p> <p>-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위한 「투자·보육 가이드라인」 제정</p> <p>- 운영시간 창업팀 육성 경쟁 촉진 및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p> <p>-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전략적 육성 프로그램 확충</p>

분류	제목 (발간일)	요약내용
주 무 부 처	<p><u>심사품질 제고를 위해</u> <u>특허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u> (특허청 / 2016.6.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청은 업무 효율성 및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심사업무 수행을 위한 심사 시스템 및 심사관이 이용하는 검색시스템을 대폭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상표심사 및 특실검색 업무 일부를 자동화하여, 심사관이 형식적 오류 검토 및 선행기술조사에 투입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심사관이 심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 (스마트 상표심사 시스템 개발) ① 통지서 자동작성 기능, ② 통지서 오류방지 기능, ③ 상품분류 자동화 기능 등을 구축 - (특실검색시스템 개선) 심사관의 검색 키워드로 검색한 검색 결과와 출원서 분석을 통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검색한 검색 결과를 종합하는 하이브리드 검색기능 구현
공 공 기 관	<p><u>2015년도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u>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016.6.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 결과'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도에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집행한 정부연구개발예산 18조 8,747억원, 639개 사업, 54,433개 과제에 대한 투자부문의 조사·분석 결과 확정 발표 ※ 분석항목 : 연구비, 연구개발단계, 연구수행주체, 지역, 위탁·공동연구, 기술분류, 연구인력 등 총 13개 항목을 중심으로 다차원 분석 ○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의 투자액은 전년대비 7.0% 증가한 18조 8,747억원으로, 중소기업·여성 및 지방 지원 늘어난 것이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연구 및 지방·여성·신진연구자·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지원은 꾸준히 증가 - 분야별로는 기계, 정보/통신, 전기/전자, 보건의료 순, 융·복합 연구는 2.3조원 - 35개 부처가 총 54,433개 연구과제 지원, 1개 과제당 연구비는 3.5억원
민 간	<p><u>월간 주요산업 동향(6월)</u> (KDB산업은행 경제연구소 / 2016.6.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B산업은행의 산업분석부는 6월 주요산업동향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향 지표는 '16년 4월 기준 ○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 수출회복 지연으로 생산 부진 지속 전망 - 철강 : 전방산업 수요 부진 지속으로 수급 개선이 지연될 전망 - 조선 : 국내 수주량 및 건조량은 상반기에 이어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



분류	제목 (발간일)	요약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 증가로 하반기 시황은 개선될 전망 - 통신기기 : 세계 휴대폰 시장 증가세는 유지하나, 증가폭 전망치는 하향 - 디스플레이 : 중국발 공급 과잉 및 단가 하락 심화, 수출 부진 지속 등으로 업황 회복 지연 전망 - 석유화학 : 합에틸렌 신증설 가동 등으로 공급이 증가하여 제품 마진은 다소 하락할 전망 - 일반기계 : 내수 및 수출 부진 지속으로 생산 감소 전망 ○ 비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운 : 수선복량 공급과잉, 낮은 운임 등으로 부진 지속 전망 - 건설 : 주택분양 확대에 따른 공급물량 부담 등으로 수주 감소세 전환 전망

Ⅲ 주요 통계

중국 「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 통계 결과」 주요내용

※ 중국고신기술산업도보는 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국가고신구)의 12·5기간(2011~2015) 주요 통계결과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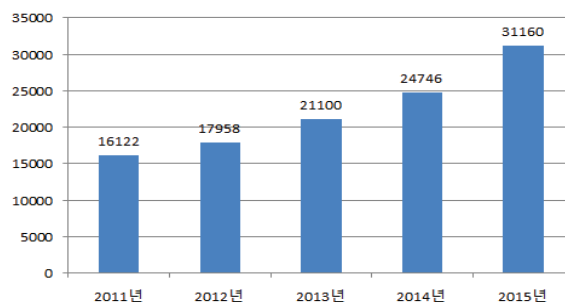
- 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이하 국가고신구)는 지역혁신의 주요거점이고, 대중창업과 만중혁신의 주요 플랫폼으로 부상
- 국가고신구 규모는 12·5기간내 146+1개로 확대되었으며, 과학기술 혁신 관련 기관도 대폭 증가

< 국가고신구 내 과학기술 혁신 관련 기관 현황 >

구 분	수 (개)	중국비중 (%)
과학기술기업인큐베이터	1354	53.5
국가급 인큐베이터	370	50.3
생산력촉진센터	53	46.8
국가급 시범생산력촉진센터	313	11.6
국가기술이전시범기관	235	51.9
국가산업기술혁신전략연맹	129	-
국가 관련 자격 보유 제품검험검사기관	540	-
국가중점실험실	318	68.4
연구기관	2415	-
국가 인정 기업기술센터	505	42.5
대학	753	-
국가공정연구센터	97	73.5
국가공정기술연구센터	217	60.3
국가공정실험실	108	68.4

- (첨단기술기업) 12·5 기간 국가고신구 내 첨단기술기업 수 연평균 증가율은 17.9%

<2011-2015년 국가고신구 내 첨단기술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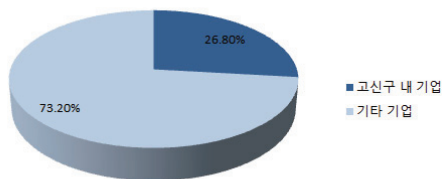


- 첨단기술기업 수는 전체 비중의 40%이지만, 이들 기업의 R&D투자와 특허산출은 국가고신구 전체의 70% 이상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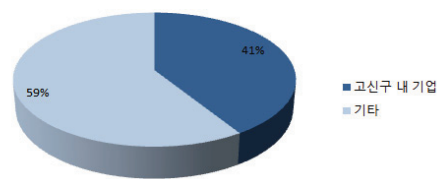


- (인재) 2015년 전체 직원 수는 1,718.3만 명으로, 이 중 대학 졸업생은 50.6만 명이며, 12·5 기간내 총 238.6만 명을 유치
- (R&D 투자) 2015년 국가고신구 내 기업의 R&D투자는 4515.6억 위안으로 국가 전체의 41%에 해당
- (기술계약액) 2015년 국가고신구 내 기업의 기술계약액은 2632.2억 위안으로 국가 전체의 26.8%에 해당

< 2015년 기업 R&D투자 >



< 2015년 기술계약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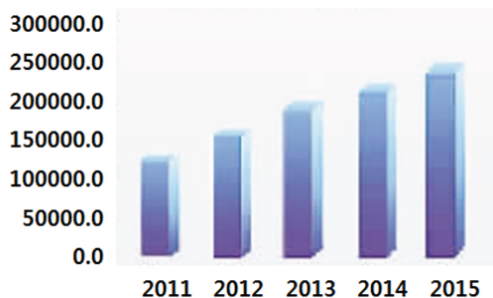
- (과학기술기업인큐베이터) 현재 중국 과학기술기업인큐베이터는 규모, 수량 등에서 세계 인큐베이터 제 1 대국이 됨

< 과학기술기업인큐베이터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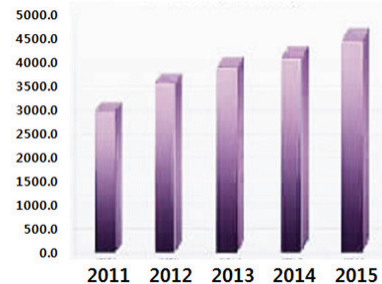
구분	과학기술기업인큐베이터 총수(개)	육성 중인 기업 총수(만개)	졸업기업 총수(만개)	취업 해결 인원수(만명)	상징과 오픈기업 육성 수(개)
11·5 기간	896	5.6	3.6	117.9	119
12·5 기간	2530	10.2	7.5	165.8	822
부가가치(%)	182	82	108	41	591

- 국가고신구의 경제 성과로 '15년 영업수입은 25.36조 위안, 수출액은 4,732.4억 달러 달성

<년도별 영업 수입(억 위안)>



<년도별 수출액(억달러)>



출처 : 중국고신기술산업도보(2016.5.30)

http://paper.chinahightech.com/page/1/2016-05/30/A8/20160530A8_pdf.pdf

ICT 분야 주요 통계

□ 주요 ICT 품목별 수출 규모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15년			2016년				
	금액	증가율	비중	5월 당월		5월 누적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72,866	-1.9	100.0	13,131	-9.9	62,912	-11.4	100.0
정보통신기기	152,217	-1.1	88.1	11,563	-10.1	55,320	-11.2	87.9
○ 전자부품	104,072	-2.5	60.2	7,783	-10.3	37,282	-14.4	59.3
○ 컴퓨터 및 주변기기	7,047	0.2	4.1	587	-0.7	2,875	-5.9	4.6
○ 통신 및 방송기기	32,919	10.7	19.0	2,596	-14.2	12,372	-0.2	19.7
○ 영상 및 음향기기	7,418	-23.0	4.3	532	3.9	2,496	-16.6	4.0
○ 광자기매체	760	1.2	0.4	66	22.1	295	3.0	0.5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0,649	-7.4	11.9	1,568	-8.8	7,593	-13.4	12.1
○ 의료정밀광학기기	8,566	-3.4	5.0	580	-24.3	2,687	-29.7	4.3
○ 가정용 기기	4,528	-12.3	2.6	361	0.6	1,771	-9.8	2.8
○ 사무용 기기 및 장비	352	-20.9	0.2	27	-23.3	120	-19.2	0.2
○ 전기 장비	7,203	-7.9	4.2	600	7.2	3,015	6.4	4.8

※ 자료 : IITP, 2016. 06.

□ 주요 ICT 품목별 생산 규모(2016년 3월 기준)

(단위: 억 원, %)

구 분	2015년			2016년				
	금액	증가율	비중	3월 당월		1~3월 누적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CT전체	4,370,210	△0.5	100.0	348,843	△5.2	1,003,489	△6.5	100.0
정보통신방송서비스	729,192	1.2	16.7	62,824	3.8	186,707	4.4	18.6
○ 통신서비스	440,163	△2.5	10.1	37,736	1.7	111,856	1.6	11.1
○ 방송서비스	152,691	8.2	3.5	12,853	△1.0	37,702	1.3	3.8
○ 방송통신융합서비스	136,338	6.3	3.1	12,235	17.4	37,149	17.6	3.7
정보통신방송기기	3,259,056	△1.1	74.6	253,082	△8.5	725,012	△10.4	72.2
○ 통신기기	709,733	0.8	16.2	58,435	5.0	165,485	0.8	16.5
○ 방송기기	143,980	△5.7	3.3	12,068	1.8	34,175	△1.1	3.4
○ 정보기기	86,259	△19.2	2.0	6,712	△23.9	18,696	△27.4	1.9
○ 부품	1,883,453	1.1	43.1	134,771	△16.8	392,393	△17.8	39.1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435,631	△7.1	10.0	41,096	7.7	114,263	6.3	11.4
SW	381,962	1.8	8.7	32,937	6.8	91,769	7.8	9.1
○ 패키지SW	67,726	△16.8	1.5	7,135	36.9	19,818	33.0	2.0
○ IT서비스	314,236	7.0	7.2	25,802	0.7	71,951	2.4	7.2

※ 자료 : KEA & KAIT, 2016. 05.



연도별 벤처기업 증감현황 (2016년 5월 기준)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1998년	-	-	-	-	304	427	413	140	230	145	160	223	2,042
1999년	91	252	182	334	243	269	310	285	248	259	268	151	4,934
2000년	278	334	458	543	563	7	618	519	384	311	382	-533	8,798
2001년	350	370	460	420	364	-839	508	341	250	198	145	27	11,392
2002년	-106	-52	-176	-319	-158	-399	-349	-122	-141	-144	-320	-328	8,778
2003년	-11	-77	-157	-59	-42	-144	-165	-89	-77	30	-199	-86	7,702
2004년	-95	-66	-77	154	280	304	168	115	128	163	-1,343	534	7,967
2005년	63	121	159	215	188	246	59	72	138	95	60	349	9,732
2006년	121	217	346	280	469	378	244	197	214	166	-497	351	12,218
2007년	-168	148	258	167	79	485	-31	256	215	289	179	-80	14,015
2008년	-34	90	112	189	-150	-475	450	201	185	378	47	393	15,401
2009년	338	663	449	551	112	165	536	318	475	72	5	-192	18,893
2010년	46	-95	200	415	812	1,112	348	589	624	510	602	589	24,645
2011년	237	450	1,092	572	-283	-400	174	16	-126	-16	15	-228	26,148
2012년	77	-137	-571	70	664	325	543	277	258	222	186	79	28,193
2013년	249	321	-32	469	-101	-334	609	-38	-292	148	-88	31	29,135
2014년	224	-369	-514	154	82	-169	492	161	122	222	15	355	29,910
2015년	143	24	3	251	-229	78	347	-102	39	138	233	425	31,260
2016년	99	-155	33	25	210	-	-	-	-	-	-	-	31,472

※ 자료 : 벤처인, 2016. 06.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 (2016년 5월 기준)

구분	제조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운수	도소매업	농·어·임·광업	기타	합계
2013년 06월	20,823	4,536	310	421	336	73	2,266	28,765
2013년 07월	21,240	4,649	314	429	344	70	2,328	29,374
2013년 08월	21,161	4,675	319	422	338	72	2,349	29,336
2013년 09월	20,922	4,618	316	417	339	71	2,361	29,044
2013년 10월	21,000	4,644	321	424	347	72	2,384	29,192
2013년 11월	20,896	4,642	326	418	350	70	2,402	29,104
2013년 12월	20,892	4,664	332	414	354	66	2,413	29,135
2014년 01월	21,016	4,722	330	420	360	62	2,449	29,359
2014년 02월	20,668	4,717	328	417	357	61	2,442	28,990
2014년 03월	20,245	4,673	322	407	356	57	2,416	28,476
2014년 04월	20,336	4,687	338	404	358	60	2,447	28,630
2014년 05월	20,411	4,710	331	405	364	54	2,437	28,712
2014년 06월	20,310	4,674	325	413	352	54	2,415	28,543
2014년 07월	20,692	4,770	334	414	365	53	2,459	29,087
2014년 08월	20,776	4,794	328	415	365	54	2,464	29,196
2014년 09월	20,845	4,832	326	415	376	51	2,473	29,318
2014년 10월	21,038	4,835	323	417	393	47	2,487	29,540
2014년 11월	21,037	4,836	323	418	399	50	2,492	29,555
2014년 12월	21,281	4,906	325	432	403	48	2,515	29,910
2015년 01월	21,384	4,927	320	431	408	50	2,535	30,053
2015년 02월	21,362	4,946	321	429	425	49	2,545	30,077
2015년 03월	21,371	4,938	321	420	430	53	2,547	30,080
2015년 04월	21,511	4,990	323	427	446	56	2,578	30,331
2015년 05월	21,318	4,963	324	427	451	53	2,566	30,102
2015년 06월	21,335	4,981	322	418	460	52	2,612	30,180
2015년 07월	21,558	5,060	324	425	470	52	2,638	30,527
2015년 08월	21,449	5,079	319	426	477	51	2,624	30,425
2015년 09월	21,488	5,066	323	429	480	53	2,625	30,464
2015년 10월	21,566	5,088	316	436	495	53	2,648	30,602
2015년 11월	21,700	5,125	316	444	511	56	2,683	30,835
2015년 12월	21,999	5,187	318	466	531	57	2,702	31,260
2016년 01월	22,047	5,203	330	464	545	56	2,714	31,359
2016년 02월	21,938	5,170	326	463	558	59	2,690	31,204
2016년 03월	21,992	5,162	316	465	564	62	2,676	31,237
2016년 04월	22,012	5,159	320	471	576	60	2,664	31,262
2016년 05월	22,177	5,173	328	476	582	63	2,673	31,472

※ 자료 : 벤처인, 2016. 06.

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

※ 동 보고서의 내용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	I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과 Tel : (02) 2110-2545 E-mail : midcent@msip.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과 Tel : (02) 2110-2972 E-mail : yjlim@msip.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실 Tel : (02) 589-2866 E-mail : haseo@kistep.re.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산업분석팀 Tel : (042) 612-8221 E-mail : shchae@iitp.kr



과학기술 & ICT 정책 · 기술 동향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